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내외 주최 국민만찬 답사

존경하는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나와 우리 일행을 환대해 주신 각하 내외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곳에 도착했지만, 아제르바이잔이 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오늘 오후에 다녀온 '상가찰 오일터미널'은 세계로 뻗어 가는 아제르바이잔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지난해 26%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섬유·건설·전자·관광 산업 등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GDP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각하의 구상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신실크로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더욱 크게 발전할 것으로 믿으며, 각하의 지도력과 국민의 저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오늘 각하와의 정상회담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올해가 양국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뜻깊은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합의한 '양국관계와 협력원칙에 관한 공동선언' 과 항공·문화 협정이 그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수교 14년 만에 양국에 상주 대사관이 설치됩니다. 이번에 체결된 에너지·IT·건설·교통 분야 협력약정도 실질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서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권도와 한방이 이곳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바쿠가 한국 TV에 소개된 바 있고, 올해 서울에서는 아제르바이잔 문화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류·협력을 확대해 갈수록 양국은 더욱 믿음직하고 꼭 필요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알리에프 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아제르바이잔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